

SBS '스토브리그' 드림즈 해체 본격화...16.8% 동시간 1위

순간 최고 시청률 19.4% 달성...토요일 미니시리즈 '전체 1위'

마지막 장면 오정세 '해체' vs 남궁민 '매각' 다음회 공금증 증폭

'스토브리그'가 드림즈 해체를 본격화하는 엔딩으로 15회 연속 동시간대 1위 자리를 지켰다. 지난 8일 오후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스토브리그' (극본 이신화/연출 정동윤) 15회 1, 2, 3부는 닐슨코리아 기준, 수도권 시청률 18.2%, 전국 시청률 16.8%, 순간 최고 시청률 19.4%를 달성, 동시간대 1위는 물론 토요일 미니시리즈 전체 1위를 기록했다. 2019 시청률에서도 9.2%로 자체 최고를 수성, '스토브리그'의 화력을 보여줬다.

이날 방송분에서는 백승수(남궁민 분)와 프런티어의 노력으로 '강두기 트레이드' 무효가 통과되자, 드림즈 해체 발표로 맞붙을 놓은 권경민(오정세 분) 사장, 동시에 드림즈 매각 의지를 내비친 백승수의 모습이 펼쳐지면서 반전에 반전

을 더하는 엔딩으로 긴장감을 폭주 시켰다.

'강두기 트레이드' 소식에 충격을 받은 백승수는 사장실로 쫓아와 "이걸 거면 한 방에 해체를 시키시죠. 구역질나게 이리저 말고"라며 격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권경민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백단장이 신뢰해서 3년 계약을 했던 윤성복(이일 분) 감독이 이번 트레이드를 도왔음을 밝혀 말문을 막히게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강두기(하도권 분)를 놓친 것에 대해 자책하는 백승수를 찾아온 이세영(박은빈 분) 팀장은 "우리가 단장님에게 신뢰를 가졌던 이유는 단장님의 우승 경력 때문이 아니에요. 단장님이 와서 보여준 책임감 있는 모습 때문이었죠"라는 말로 백승수의 각성을 도왔다. 다음날 백승수는 드림즈 프런티어 앞에서 서서 "저

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방향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즈가 꼭 재송 드림즈 여야 하는지"라는 말을 꺼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다.

이어 드림즈 프런티어의 전방위적 활약으로 '강두기 트레이드'에 대한 팬들의 시위와 비판이 이어졌고, '강두기 은퇴설'까지 불거졌던 상황. 이에 권경민의 특보 장우석(김기무 분)마저 동요했고 백승수는 "자부심이 있으신 분이 왜 명백히 야구가 훼손되는 것을 옆에서 돕고 계십니까"라는 말로 장우석의 야구 자긍심을 건드렸다. 결국 장우석은 '강두기 트레이드' 당시 이런 계약서를 백승수에게 전했고, 권경민이 현금 20억을 다른 계좌를 통해 본사로 빼돌린 것이 밝혀졌다. 백승수는 이에 대한 폭로와 함께 강두기 트레이드 전면 무효를

요구했다. 그리고 백승수는 소비자 기업이었던 재송그룹이 중공업이 강한 강성그룹과 빅딜에 성공하며 조만간 드림즈가 해체될 것이라는 정보를 윤성복에게 전달, 증언을 하게 하면서 사외의 기회를 만들었다.

이후 '20억에 팔린 국가대표 1선발' 등의 기사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야구협회의 조사가 시작될 것임이 밝혀지며 타이탄즈는 이세영 팀장을 통해 '강두기 트레이드 전면 무효화'를 알렸다. 직원들의 박수를 받은 백승수는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에 대한 박수로 좀 지나칩니다"라며 민망해했고, 이를 본 권경민은 "아주 다들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준 게... 아주 보기 좋아요"라며 비꼬았다.

더욱이 권경민은 백승수에게만 들리게 "야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 알아? 드림즈 해체 발표. 기자회견. 재밌겠지? 같이 갈래?"라며 기선제압을 시도했지만, 백승수는 "아니, 나도 많이 바랄 것 같애"라는 말로 일갈했다. 그 후 백승수는



권경민이 사라지자 "재송그룹이 우리를 버리기로 한 이상 우리도 결정을 필요합니다. 드림즈 역사에서 투자 의지도 예의도 없던 재송그룹을 이제는 지워버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는 말로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권경민이 드림즈 해체 기자회견장에 나선 가운데, 백승수가 권일도(전국환 분) 회장을 찾아간 모습이 펼쳐졌다.

이어 기자회견 선 권경민이 "드림즈를 해체합니다"라며 고뇌하는 표정을, 권일도 앞에 선 백승수가 "드림즈를 제가 매각하겠습니다"라며 확신해 찬 표정을 보이는 긴장감 넘치는 '심장 폭격 투샷 엔딩'이 펼쳐져 다음 회에 대한 공금증을 증폭시켰다.

한편 '스토브리그' 마지막회인 16회는 오는 14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최지우 '사랑의 불시착' 카메오 비하인드

권상우 '소라게' 명장면 재연...유수빈과 미소



배우 최지우의 '사랑의 불시착' 현장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최지우는 지난 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극본 박지은/연출 이정호) 13회에 깜짝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최지우는 극중

김주먹(유수빈 역)이 북한에서부터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던 최지우 본인 역으로 등장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 명대사인 "사랑은 돌아오는거야"를 듣고 울먹이는 주먹이와 이를 흐뭇하게 바라보는 최지우의 만남이 시청자들을 폭소

케 했다. 또한 김주먹은 권상우의 소라게 명장면도 재연해 웃음을 더한 바 있다.

이 가운데 9일 당시 현장 분위기를 담은 비하인드 컷이 공개됐다. 공개된 사진 속 최지우는 촬영이 들어가기 전 주먹이와 대사를 맞춰보고 있는 모습이다.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사를 하다가도 순간 마주치면 현실 웃음을 터뜨려 촬영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극 초반부터 주먹이의 '지우히메' 사랑이 각별했던 터라 그녀의 특별 출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상황. 제작진의 제안에 최지우는 흔쾌히 출연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도 최지우는 "드라마를 너무 재미있게 보고 있다"며 "좋은 작품에 초대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다"고 애정을 드러내 훈훈함을 더했다.

오랜만의 안방극장 나들이로 최지우는 순식간에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뜨거운 화제성을 입증했다.

뉴스1

유민규 "버티고 노력한 지해원, 내 삶과 많이 닮았죠"

최근 종영한 tvN '블랙독' 서 고군분투 기간제 교사역



지난 4일 오후 9시30분 방송을 마지막으로 종영을 맞은 tvN '블랙독' (극본 박주연/연출 황준혁)은 기간제 교사가 된 사회 초년생 고하늘(서현진 분)의 이야기를 그려내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선물했다. 교사라는 그런 사회와 삶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가슴 깊이 다가왔다는 호평도 이어졌다.

이런 '블랙독'에서 주인공 고하늘 외에도 많은 공감을 받았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6년 동안 대치 고등학교에서 정교사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기간제 교사 지해원(유민규 분)이었다. 극 초반 고하늘이 낙하산으로 대치 고등학교의 교사로 들어온 줄만 알아 볼 낱소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 세상 어디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버티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힘을 다해 버티는 지해원의 모습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고, 특히나 고하늘과의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경쟁을 펼치는 모습은 두 사람 모두를 응원하게 만드는 마음을 가지게 만들기도 했다. 이는 사실상 높은 캐릭터의 힘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 유민규의 힘이기도 했다.

캐릭터가 가진 매력을 더욱 배가시켜, 공감을 안기는 묘를 유민규는 '블랙독'에서 완벽히 소화해냈다. 과연 그가 어떻게 지해원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왔고 또 어떻게 그가 그 인물의 이야기를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들었는지 뉴스1이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종영소감을 전한다면.
▶일단 이렇게 좋은 작품에서 연기한 게 영광이었고 행복했다. 또 좋은 감독님과 좋은 스태프분들, 좋은 선배 배우들과 연기를 하게 돼서 영광이었다.

-약 2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작인 만큼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해원이라는 캐릭터를 두고 봤을 때 공감이 많이 가는 캐릭터여서 애착이 갔고, 그래서 더 몰두해서 연기했었다.

-어떤 점이 많이 공감이 됐나.
▶일단 나뿐만 아니라 시청자 분들도 공감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이 지해원이 하나의 직장 안에서 정교사가 되겠다고 6년을 버티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배우도 비슷하지 않나, 나도 배우로서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티고 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많이 닮아있었다.

-정교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슝 문수호(정해균 분)와 포옹하는 장면이 많은 호평을 받았는데.
▶그 장면은 연기할 때도 마음이 '몽글몽글'했다. 그 장면 외에도 면접 보는 모든 장면들이 '짠'한 느낌이 있었다. 눈물을 참느라 너무 힘들었다. 또 "저 한 번 안아 주시면 안 돼요? 저 6년 동안 되게 힘들었는데"라고 말하면서는 마음 같아서 '영영' 울고 싶었다.

-'낙하산 기간제 교사'를 찾아내는 점도 '블랙독'의 재미를 높여준 한 요소였는데.

▶사실 배우들도 누가 낙하산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모두가 알게 되는 장면을 1월 초에 찍었는데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서야 누가 낙하산인지 알게 됐다. 이미 정해놓고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감독님이 이걸 배우들이 알고 연기하면 티가 나게 될까봐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셨다. 본인인 안상은씨도 모를 정도였다.

-자신이 연기한 지해원 역과의 닮은 점이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해원과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한다. 저와의 싱크로율은 90% 정도인 것 같다. 또 이전 저만의 지해원을 바라본 시선인데 지해원은 정말 학생들과 같이 있는 게 좋으니까 6년을 버텼다고 생각한다. 저도 연기를 좋아하니깐 지금까지 버틴 것 아니겠나. 그럼 점이 닮았다.

-4%대의 시청률은 아쉽지 않았나.
▶사실 저희는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았다.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더 잘 나오면 좋을텐데'라는 욕심은 있었는데 생각한 만큼 안 나와서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없었다.

-배우로서 자신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나.
▶어떤 직업군인데 소화할 수 있는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개성적인 것도 아니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니 어떤 역할을 해도 불편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앞으로 차기작에서 어떤 배역을 해보고 싶나.
▶특별히 직업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고 못 해본 게 많으니 다양한 연기를 해보고 싶다. 특정하자면 OCN 드라마를 좋아해서 장르물을 해보고 싶다. '손 더 게스트' 같은 오컬트 장르도 해보고 싶다. 굳이 꼽자면 범죄자 역할도 재밌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원이라는 캐릭터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시청자들이 공감하게 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이특, 전화번호 유출 피해에 고통 "돈받고 판다더라"

그룹 슈퍼주니어 이특이 전화번호 유출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특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갑자기 "조금 뒤에 다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며 방송을 종료했다.

이어 이특은 라이브 방송을 재개하고 전화 때문에 방송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하니까 전화가 많

이 온다. 여러분이 전화를 하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가 없다. 계속 전화를 하시면 차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어떤 팬 분이 알려 주셨는데 누군가가 제 번호를 돈 받고 판다더라. 번호를 알면 좋은 거"라고 꼬집었다.

한편 슈퍼주니어는 지난달 28일 정규 9집 리패키지 앨범 '타임리스' (TIMELESS)를 발표했다.



빅뱅 탑, 취중 SNS 라이브 "한국 컴백 안 할 것...사람들 못됐다"

빅뱅 탑이 국내에서는 활동 복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탑은 7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상 속 탑은 술을 마신 후 취한 모습을 보였고, 말을 하면서도 어눌하게 말을 이어갔다.

탑은 "그냥 한번 모습 보여주고 싶었다"라며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라고 얘기했다.

이어 "팬들한테 항상 미안하다"라며 "한국에서 컴백 안 할거다. 컴백 자체를 안 하고 싶다"라고 못 박기도 했다.

탑은 근황에 대해 "요즘은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너무 못됐다. 사랑을 우리 가져요. 피스"라고 덧붙였다.

앞서 탑은 의경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지난 2016년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 2017년 7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아 의경 신분이 박탈됐다. 이후 2018년 1월 서울 용산구청 용산공예관으로 재배치, 2019년 7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